둘 아닌 도리 알고 나퉈야 참 자유인

☞ 19면에서 계속

사랑 아닌 게 없으니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無)'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써놓지 않고 그냥 백지에다가 저 허공에서 점 하나 뚝 떨어지기 이전을, 침 뱉어서 떨어지기 이전을 그냥 이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국한된 것이 부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컬어 자유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살았고 현재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미래에도 이 자리에서 또 살 거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은 다음생 어떤지…

문 보통 사람들은 업에 따라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태어나게 된다는데요.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해탈된 경지로 태어납니까?

답 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윤회나 인과 이런 데에 끄달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누구든지 손을 못 대요. 그러나 공부로써 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업보에 끄달리는 거예요. 윤회에도 끄달리고 그냥 끄달리고 걸리는 거죠.

그 왜 걸리느냐? 자기 숙명통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로 자꾸 나오는 것인데 숙명통이라는 영원한 자동적인 컴퓨터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앞서 입력됐던 게 없어지거든요. 새로 입력하는 것만 들어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운명에도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고 거기 붙을 자리가 못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끄달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거적을 쓰고 죽든 또는 아주 좋은 이불을 덮고 죽든 그건 자유예요.

그래서 얻은 사람에 한해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자유스럽지만 이 경지를 모르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허무하기만 하겠지요. 자유스럽지도 못하고요. 콩깍지가 익은 거는 탁 건드리기만 해도 콩이 탁 나오지만, 죽는 걸 표현을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은 것은 그냥 속껍질도 다 짝 붙었어요. 그래서 그 속껍질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몇 년씩 앓고 온통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서도 그 설은 게 말라서 껍데기가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그냥 "얘야, 난 어째 잠이 온다."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어디 좀 갈 일이 있으니 이거, 이거 좀 챙기고 옷 좀 챙겨주고 그래라" 이렇게 해놓고는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속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해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자유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속을 썩이고 이러면 '얘, 네 친구와 내 친구가, 즉 말하자면 저 자식과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그저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저기도 불이 들어오게 해라.' 이러고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양쪽에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이치예요. 모두가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대로 모든 것을 '아하! 여기서 그러는구나.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가난해서 죽든 나한텐 아랑곳없다.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놨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시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주인이자 시자거든요. 시자이자 주인이고, 이게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배울 때는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일 뿐인 것입니다.

약 안 쓰고 병 낫고 싶어요

문 스님께서는 마음에는 체가 없어서 윤회도 병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일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이 나쁘지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받아야 했었는데 폐도 나빠졌고 그래서 한약을 굉장히 오래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쓰지 않고 공부로써 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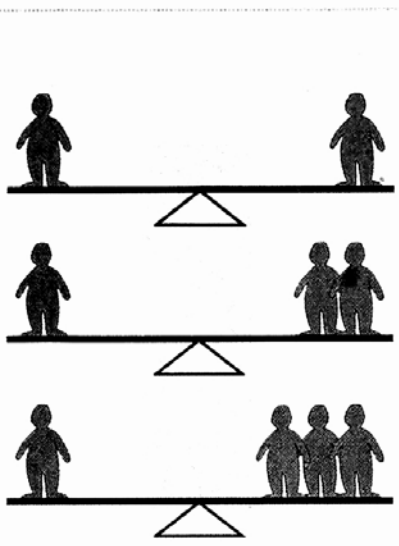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할땐 나와 남이 모두 이익되게

참나에 맡기고 실험하니 생활 참선

답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성하게 산 것도 네 놈이 한 것이고, 내 친구가 한 것이고,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내가 아프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보려고 테스트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고선 거기다 그냥 맡겨놓으면 한 참나인데 왜 그렇게 생각들을 복잡하게 길게 뭉쳐 놓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게, 항상 전력이 참나참나 왔다갔다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이 와야 만이 불도 켤 수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각자의 발전소가 있지만 이 발전소에 가설만 해놨지 지금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같이 불을 켜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지극하게 해보세요.

자책하니 에너지 빠져나가

문 제가 요사이 생활 속에서 행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을 잘못했다 라고 자책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 저의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요?

답 에너지는 자동적이기 때문에 자력이나 전력이나 광력 통신력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봐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니까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생각을 할 때, 자기를 구덩이에다 쓸어 넣게 생각하지 말고 말 잘못하지 말고 조심하고 항상 남과 나를 이익하게만 생각하고 공심으로 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좋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꿈을 군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니까 이것도 꿈이요, 영화배우나 똑같아요.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보지요? 그런 거나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억눌러서 하지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남과 남이, 나와 남이 서로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내면 돼요. 그렇게 돌려놓고요. 그것이 다 살아왔던 관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개체의 의식들이 다 내가 마음을 내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만 제대로, 나오는 대로 나오는 그 자리에다 되놓을 수 있다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이 다 따라주니까 기가 어떻게 되느니 상관할 것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용도대로 닥쳐오는 일들을 대장부의 살림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기도는 어느 때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도라는 건 타의를 향해 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렇게 절대자를 찾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는데 여러분이 혹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밖으로 찾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수행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부터 불교에서는 자성을 봐라, 너 아닌 너를 발현하라고 했는데 모두들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주처는 각자 자기한테 있는 건데 어째서 고상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자기, 즉 말하자면 자기 원소를 진짜로 믿는 데는 관(觀)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 군데다 놓고 빌지 마라 이 소립니다. 빌면서 나를 잘되게 해 달라, 또 산신님한테다 놔야 되고 칠성님한테다 놔야 되고 신중단에다 놔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에 놓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약한 마음에 의해서 오히려 우환과 가환은 끊일 날이 없이 거기에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말을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상대가 꼭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그냥 관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체험하고 나가는 게, 그냥 실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행선입니다. 일하면서 하는 게 행선, 누워서 하는 게 와선, 서서 하는 게 입선, 앉아서 하는 게 좌선, 다 그냥 같이 돌아가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는 게 그냥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참선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했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가야 하는데 달구지를 쳐야 가겠습니까, 소를 쳐야 가겠습니까, 소를 쳐야 달구지를 끌고 가지, 아니, 달구지를 치는데 소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기복은 모두 지금 달구지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것이 바로 달구지를 치는 격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실천하는 수행으로서 자기 마음이라는 소를 치지 못한다면 모두 달구지를 치는 격입니다.

그렇게 참답게 수행해나가다 마음의 물리가 터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의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내 씨가 나에게 들어 있는 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할 때,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 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비로소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 나가면서 바로 제도하는 것으로써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키워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도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맑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 당신이 보는 앞에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 ?

숭산 행원 선사(崇山 行願 禪師)

숭산 큰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읍에서 태어나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득도하여
수덕사 고봉 선사를 법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마곡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을 지냈다.
1966년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프랑스 등에 홍법원을
개설하고 한국 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숭산 큰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계사 주지 겸 조실로 있다.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혹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부처님께 재를 털면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